



발행인 : 김현례 학과장 | 편집인 : 이신영 교수, 학생회 : 이완 학생
발행처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발행일 : 2025년 2월

학과 소개



학과 소개

우리 간호학과는 조선대학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기초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1969년 4년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호남 지역 대표 간호교육기관이다. 입학 정원 30명으로 신설되어 1973년 50명, 2009년 70명, 2010년 80명으로 증원되었다. 우리 학과는 1973년 석사과정, 1999년 RN-BSN 과정, 2004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5년 인증을 획득하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간호전문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저희 학과는 간호학사 동문 3,526명, 석박사 316여명의 대학원 동문을 배출해오고 있으며, 이들은 보건의료계, 교육계 및 산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 간호사, 전문 간호사, 교수, 보건교사, 산업보건 관리자, 간호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목적

조선대학교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성 사상에 기초한 간호의 과학성, 전문성을 함양하는 전인적 간호교육을 통하여 대상자의 치료와 돌봄 그리고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 목표

1. 인간생명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화하고, 윤리적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는 태도를 계발한다.
2.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적 간호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3. 간호상황에 적합한 임상추론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적 간호수행 능력을 기른다.
4.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관리 역량을 함양한다.
5. 다학제적인 전문지식을 간호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 간호의 질과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 보건의료팀과 협동하는 간호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습성과

- PO1. 간호학문과 다학제적 연구기반 지식을 간호 실무에 적용한다.
- PO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임상추론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수행한다.
- PO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집단의 건강을 관리한다.
- PO4. 인간존중의 태도와 법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책임감 있는 간호를 수행한다.
- PO5. 안전과 질 향상의 원리를 간호수행에 적용한다.
- PO6.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 PO7. 개인과 전문직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개발한다.
- PO8.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학과 소식

◎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5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24년 4월 19일 의과대학 2호관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에 간호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다듬고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는 의식으로 매년 3학년들이 이 의식을 통하여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연중행사이다. 학생들은 3학년 지도교수(김해란)로부터 청진기를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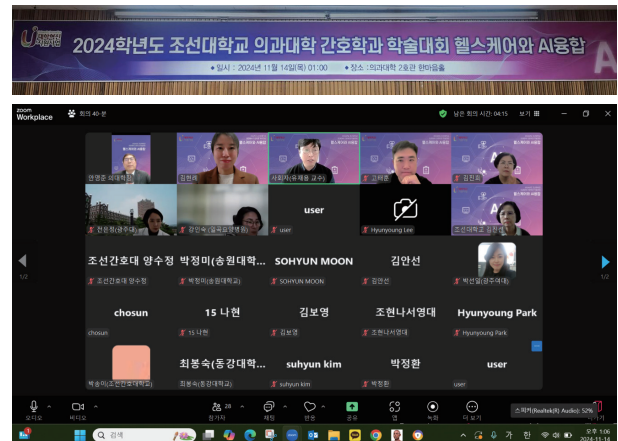
◎ 취업설명회

3학년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으로 2024년 10월 18일 의과대학 2호관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임병내 간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김혜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박유리 대리로부터 기관 소개, 인재상, 담당 업무 및 취업준비 전략을 안내받고 취업 준비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학술대회

2024년 간호학과 학술대회는 11월 14일 '헬스케어와 AI 융합'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강연에는 고태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 교실)가 '초거대언어모델의 개요와 임상연구에의 활용', 홍영일 대표(재미와 의미 연구소)는 '인간의 연민과 Chat GPT 공감', 그리고 유승찬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 정보학 교실)는 '의료분야에서의 Chat GPT 활용'에 관해 발표하였다. 석사과정생의 임상논문과 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교수 소식

◎ 김현례 교수

간호학과 학과장(2024년 3월-현재)

◎ 김진희 교수

대학원 간호학과 주임교수(2024년 9월 1일-현재)



대학원 소식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2024년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16명, 박사과정 3명이 입학하였다.

◎ 2024년도 학위 수여자 현황

학위	학위수여일	성명	논문 제목
석사	2024.02.23.	이경윤	중소병원 간호사의 그림과 임상적 의사결정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024.02.23.	김보미	COVID-19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향요인 :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간호 전문직 자부심 중심으로
	2024.02.23.	나수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팀워크가 직무스트레스(presenteeism)에 미치는 영향
	2024.08.23.	최율	정신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정신장애인 낙인, 의사소통 역량, 대처 전략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	2024.02.23.	강희	간호대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중환자간호 가상시뮬레이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24.08.23.	김수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증상 유형화 및 삶의 질 영향요인 : 잠재프로파일 분석

간호학과 동창회 소식



◎ 2024년 간호학과 동창회 활동경과

- 2023.12.28. 25대 동창회 임원진 조성
- 2024.01.16. 조선대 총장 취임식 화환 전달
- 2024.02.07. 간호학과 졸업식 참석
- 2024.03.14. 조선대병원 간호부장, 팀장 승진 화환 전달
- 2024.03.27. 간호학과 교수 학생 간담회 참석 및 2024 상반기 동창회 장학금 수여
- 2024.08.07.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참석(동창회장)
- 2024.09.27. 임원회의
- 2024.10.08. 간호학과 4학년 대표 및 학생회장 간담회
- 2024.10.22. 간호학과 4학년 대상 동창회 홍보 및 만남의 시간
- 2024.10.28. 임원회의
- 2024.11.04. 동문선후배 교수님과 만남
- 2024.11.07. 동창회 증경회장님과의 만남



교수 학생 간담회 겸 장학금 수여



간호학과 발전지원 실행이사회의



4학년 대상 동창회 홍보 및 만남



학생 소식

◎ 간호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025년 1월 1일부터 제38대 간호학과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완, 부위원장에 김슬빛 학생이 선출되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시기까지 학과를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 간호학과 학생회 활동

2024년 한 해에 간호학과 학생회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행사(신입생 이벤트, SNS 홍보 사업, 개강총회, 사진전, 걸음 기부 캠페인, 공스타그램 등)를 진행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 주었다.



◎ 간호학과 학생학술제

2024년 간호학과 학생학술대회는 10월 25일 이종균홀에서 개최되었다. 3학년 학생들은 간호연구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 연구 분야 주제로 연구계획서(최우수상 : '비동등성 대조



군 사후설계를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수혈VR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하였다.

◎ 기본간호경진대회

2024년 11월 6일, 7일 의과대학 3호관 이종균홀에서 기본간호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담당 교과목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참석하여 의학용어, 해부학,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2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학생들이 일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함과 동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상을 제공하였다.



◎ 달빛견학

2024년 7월 2일 조선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창원한마음병원' 실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선배 간호사와의 멘토링과 병동, 외래 소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다.



◎ 간호학과 동아리 활동

1) 간호학과 '나눔'동아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이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과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여러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봉사 활동 이외에도 나

이팅게일 선서식, 떡식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며 선후배, 동기들과의 많은 추억을 쌓고 있다.

2) 2024년 간호학과 동아리 '윙스'는 광주 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환경 보호 캠페인, 지역축제 지원, 자원봉사 교육 수강,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호학과 필리핀 국제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2025년 2월 4일에서 10일까지 간호학과 학생 (8명)은 필리핀(마닐라 & 보라카이)에서 국제보건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국제협력단 필리핀 지부 등 국제보건 관련 기관 방문, 대학 및 병원 방문, 지역사회 보건활동, 보건교육, 문화체험 및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보건간호역량 및 글로벌시민의식을 향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대학교병원 고유경 간호사

1.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10학번 졸업생 고유경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1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학과생활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와 실습으로 바쁘게 지냈고, 방학 때는 영어 점수를 위해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해외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특히 다른 과 학생들과 베트남으로 의료봉사를 갔던 것과 아틀라스 동아리에서 그림 전시를 준비했던 일 등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들을 찾아다녔던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취업 준비를 앞두면서는 모의 면접도 여러 번 해보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를 타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텐데 같은 과정을 함께하는 동기들 덕분에 힘내서 끝내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3. 입사 후

서울대병원에 입사 직후 어린이병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규시절 기숙사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던 날들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브닝 끝나고 동기들과 맥주를 마시며 울고 웃던 날들을 지나오니 1년만 버티자에서 3년 채우자가 되고, 지금은 11년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결국 회복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소아과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미소만 봐도 힐링이 되는 순간순간이 있어서 힘든 임상을 견뎌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소아과 병동 두 곳을 거쳐 현재는 어린이병원 진정간호사로 일한지 5개월 가량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간호사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검사나 시술 시에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안전을 위해 진정전담간호사가 환자를 재우면서 진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에 제가 주인공인 브이로그가 나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소식

4. 앞으로의 꿈

학업적으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동간호학 석사과정 수료 상태입니다. 논문 계획 발표 이후 한동안 진전이 없었지만, 올해는 꼭 졸업을 목표로 부지런히 노력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미국 간호사로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클렉스 취득 후 뉴욕에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완료했고 현재 영주권 수속 진행 중이에요. 문호가 열리지 않아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고 도전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5.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병원에서 고작 10년 남짓 일했고 모든 부서를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나 편안한 부서는 없는 것 같습

니다. 업무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숙달되어 여유가 생길 뿐,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때때로 오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이걸 비단 병원에서의 일 뿐만은 아니고 어딜 가든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업성적이 안 좋아서, 영어 점수가 낮아서, 좋은 병원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보니 그리고 함께 졸업한 친구들을 보니 같은 길을 가다가도 다 각자의 길과 행복을 찾아가더라구요. 저 역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나온 것은 뒤로 하시고, 앞으로의 공부에 집중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풍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후배님들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보건을 향한 첫걸음, 필리핀에서 마중물을 채우다.

간호학과 2학년 조윤주



국제보건에 대한 관심과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싶다는 기대 속에서, 2025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료 봉사를 넘어, 국제보건 관련 기관 방문, 지역사회 보건활동, 보건교육, 문화 체험 등 다각적인 경험을 통해 글로벌 헬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사무

소, MAG(Medical Action Group) 등과의 만남은 국제사회에서의 보건의료 협력과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서는 글로벌 보건 이슈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웠다. 마닐라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10분남짓한 거리 차이로 판자촌과 월세가 200만원인 아파트가 공존한다는 점이었다. 마닐라에서 직접 눈으로 본 모습을 떠올리며 건강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제 보건과 건강을 보장받을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WHO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보건 분야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임상 간호뿐만 아니라, 연구, 정책, 개발 협력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게되어 진로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는 간호지식을 가지고 국제보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학생 소식

KOICA 필리핀 사무소 방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며, 공공보건과 글로벌 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비영리단체인 MAG 활동가의 강연을 통해 필리핀 보건 의료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을 듣고, 낮에 직접 보았던 필리핀의 보건 환경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글로벌 보건 이슈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몸소 경험하며, 국제보건 간호사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MAG와 같은 비영리단체기구에서는 정부지원을 일체 지원받지 못하거나 다른 단체와 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을텐데 어떤 이유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지가 궁금했다. 이들은 어려움이 처해있는 대상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들은 스스로 직접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요청할 수 없는 여러 사정과 처지에 있으므로, 자신들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후에 미래 간호사로서 또는 국제보건에 기여할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지 배울 수 있었다.

보라카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신체검진과 손 위생, 구강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원주민 마을인 아티마을(Ati Village)에서는 성인,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뎅기열 예방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손 위생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발등에 상처가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상처부위가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흙바닥에 앉아있는 아동들을 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의 간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필리핀의 지역사회 보건활동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주민들을 교육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저녁, 학생들은 성찰(reflection)을 통해 서로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자신의 역할과 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돕는 개인의 역할을 넘어 팀 전체를 고려하는 태도와 협력을 다짐하며 글로벌 리더로서 한층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써 국제 보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연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경험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제보건과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마중물로 삼아 더 넓은 시야로 간호를 바라보며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만약 해외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도전적이라고 느껴서 주저하고 있다면 이 경험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과 연대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므로 주저말고 도전하라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활동에 진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얻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발전기금



◎ 발전기금 납부안내

조선대학교 비전 '백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선도 대학'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납부를 통해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발전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약정서 내 기부용도에 '간호학과 발전기금'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자세한 안내 사항과 약정서 양식은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 <https://www3.chosun.ac.kr/fund/index.do> 에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금 납입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약정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기부정보를 작성하시고 아래 입금은행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 신한은행 : 100-036-638130

우편이나 이메일 기부금 납부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우 편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본관 2층 홍보팀
- 이메일 : fund@chosun.ac.kr

직접 방문 납부

우리 대학 대외협력처 홍보팀(본관 2층, 2163호)을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기금을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전 화 : 062-230-6234

